



주간통일정세 2011-08(2011.02.14~02.2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0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中 치안총수 회담…협조 합의(2/14, 조선중앙통신)**
 - 중국 국무위원인 명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이 방북한 가운데 13일 북한 인민보안부와 중국 공안부가 협조 합의를 조인했다고 보도
 -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중국 공안부가 조선 인민보안부에 ‘협조물자’를 전달했고 기증식이 이날 평양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어떤 물자를 얼마나 기증했는지도 밝히지 않았음.

- **北, 김정일금고 38호실 부활…평양 축소(2/14,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 금고 역할을 하는 노동당 산하 전문부서인 38호실을 부활시키고, 또 남포시를 특별시로 추가하고, 평양시의 일부 구역을 황해북도로 떼어내 평양시를 축소 개편한 것으로 나타남.
 -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판 북한 권력기구도 및 주요인물집을 공개함.

- **북한 주요인물 누가 뜨고 누가 졌나(2/14, 연합뉴스)**
 - 통일부가 발간한 2011년 판 북한 주요인물집에 새로 수록된 인물 중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과 김경옥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단연 눈에 띈.
 - 680여 쪽 분량의 통일부 북한 주요인물집은 두 쪽에 걸쳐 김정은의 현직과 출생, 가족관계, 주요경력과 주요활동을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
 - 2010년 판 북한 주요인물집에 있던 인물 중 2004년 이후 활동 기록이 없거나 사망한 27명의 명단은 이번 책자에서 삭제, 특히 책자 부록에 있던 사망자 명단에서 삭제된 권중영 전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부총장과 길재경 전 당 국제부 부부장, 최춘황 전 황해남도 당위원회 비서 중 2000년 6월 사망한 길 전 부부장은 2003년 한때 미국 망명설이 나돌았던 인물임.

- **“백두산에 이상현상”…北, 김정일 생일 띄우기(2/14, 조선중앙통신)**
 - ‘백두산밀영 기상관측소 자료’를 인용해 “1월 말부터 정일봉 일대의 기온이 점차 풀리면서 2월10일 현재 소백수 골짜기에는 버들꽃이



피어났다”며 “올해는 여느 해보다 9일이나 앞당겨 버들꽃이 피어났다”고 전하면서 매년 김 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추위 속에도 정일봉에 버들꽃이 피었다며 이상화 선전을 하고 있음.

- 이밖에도 분위기 띄우기에 앞장선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을 영웅화하는 이상화 기사 등을 연일 싣고 있음.

● 北 ‘최대명절’ 김정일 생일 맞아 이상화 절정(2/16, 연합뉴스)

- 시군별 경축행사, TV는 종일 찬양 프로그램 보도, 일부 지역엔 쌀·과자 등 특별배급도 하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9회 생일(2월16일)에 양강도 혜산시 주민들에게 특별공급 명목으로 ‘하루치 식량배급’을 약속했다고 대북매체 열린북한방송이 전함.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언론자유를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 15일 밤 9시께 북한 양강도 혜산시 주민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함.

* 통일부는 1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 행사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힘.

● 北김정일, 中공안부장 접견(2/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동지께서 맹건주 공안부장이 조선 방문에서 원만한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며 “조중 두 당, 두 나라 무력 및 안전 부문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밝힘.
- 맹 부장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돼 조선혁명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소개함.

*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그와 관련해 확인을 요청받았으나 “발표 내용을 확인해보라”며 즉답을 피함.

● 北김정철, 싱가포르서 에릭 클랩턴 공연 관람(2/15, KBS)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차남인 김정철이 부친의 생일(2.16) 이틀 전인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 김정철 옆에 여동생 여정(24)이 앉은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끄. 하지만 여정(24)이라고 추정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부인이나 애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음.
- 김정철은 싱가포르에 1주일 정도 머물다 15일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김정철은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대사 정성일) 관계자들의 경호와 안내를 받았으며, 14일 공연을 관람하기 전까지는 쇼핑물과 동양 최대의 해양수족관과 놀이공원 등이 있는 센토사섬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 등을 돌아다녔다고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이 전함.

- 김정철은 지난 15일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아들보다도 김정일이 더 밖으로 자주 나오고 북한을 개방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음.

● **北, 외교사절 참석행사서 김정은 찬양가 첫 사용(2/16, 교토통신)**

-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교사절이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찬양가로 알려진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반주곡으로 썼다고 보도
- 평양에서 열린 수중발레(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공연의 반주곡 중 하나로 이 노래가 흘러나왔으며, 이 행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16일)을 앞두고 평양 주재 외교 사절과 외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 이날 공연은 김 위원장의 생일을 경축하는 수중발레 모범 출연 ‘영원한 2월의 봄’으로 평양시 창광원 수영관에서 열렸으며 리태남 내각 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박명철 체육상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짐.

● **北, 김정일 수행자 리영호보다 정은 먼저 소개(2/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힘.
- 공연에는 후계자 김정은이 동행했는데 수행자 보도순서에서 김정은이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처음으로 앞서 배경이 주목됨.
- 중앙통신은 공훈국가합창단이 여성5중창과 남성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남성합창 ‘흰눈 덮인 고향집’ 등을 공연했다며 김정은 찬양가로 알려진 ‘발걸음’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선중앙방송은 같은 소식을 전하며 ‘발걸음’도 공연됐다고 전함.
-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리영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 당 비서가 동행했음. 또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을 비롯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경옥·김원홍·김명국·정명도·리병철·김영철·윤정린,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리명수도 함께 봤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김정은, 작년초부터 ‘현지지도’ 동행했다(2/16, 조선중앙TV)**

- 김정은이 지난해 9월 28일 조선노동당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공식 등장하기 이전인 지난해 1월 초부터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됨.



-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생일인 16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라는 제목의 30분짜리 기록영화를 방영하면서 작년 초부터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에 동행한 장면을 무더기로 내보냄.

●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짝퉁 명품 대량 구입(2/17,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의 69번째 생일을 맞아 각종 행사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선물 중에 짝퉁 명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북중 교역에 정통한 익명의 한 소식통은 지난 3개월 동안 북한 관리들이 베이징의 명품 브랜드 모조품 시장에서 구찌와 아르마니 브랜드의 짝퉁 정장 제품을 포함한 의류와 섬유제품들을 대량으로 구입했다고 15일 말했으며, 과거 북한 관리들은 베이징에서 정품의 명품만을 구입해 갔다고 덧붙임.

● **김정일 생일연회 이례적 참석…위상 과시(2/17,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자신의 생일 경축연회에 참석해 최고 통치자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
- “김정일 동지의 탄생 69돌을 경축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16일 저녁 연회를 차렸다”며 “김정일 동지가 나오시자 (참석자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했다”고 전함.
- 북한이 외무성이나 인민무력부 등이 나서 개별적으로 여는 연회를 제외하고 노동당 중앙위원회나 국방위원회 등 대표적 국가기구 차원에서 김 위원장의 생일 연회를 연 것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과 2007년밖에 없었는데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올해가 처음
- 2000년 연회는 당 중앙위가, 2007년 연회는 당 중앙위와 국방위가 공동주최했지만, 이번에는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당 중앙군사위도 주최기구에 포함됨.
- 당 중앙군사위는 국방위와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19주년 행사를 함께 열기는 했지만 북한의 대표적 세 권력기구가 총출동해 연회를 주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임.

● **형식적 행사로 전락한 北 ‘정일봉 답사행군’(2/17, 자유아시아방송(RFA))**

-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 생일(2.16) 경축 행사의 하나인 ‘정일봉 답사행군’이 올해 지원자 부족으로 강제동원식으로 열리는 등 형식적 행사로 전락한 느낌임.
- RFA는 15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 ‘정일봉에로의 답사행군’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참가자 규모가 3분의 1 수준인 1천명 이하로 대폭 줄었으며, 이마저 지원자 부족으로 평양시 돌격대와 강원도 군인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전함.



- **김정일 칠순…‘황태자’ 띄웠지만 특별배급 미미(2/17, 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칠순 잔치 과정에서 후계자 김정은을 부각하면서 세습 정당성을 강조했다지만 정작 특별배급으로 민심을 잡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김 위원장 생일(2월16일) 한 달 전부터 김 위원장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생일 당일에는 김정은의 군 장악 경험을 내세우는 미공개 영상까지 방송했지만, 식량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기대심리까지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임.

- **日 매체, 지난해 北 김정철, 정은 아이 태어나(2/17, TV 아사히)**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차남 김정철(29)과 후계자로 부각된 삼남 김정은(28,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지난해 잇따라 아이가 태어났다고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北, 이집트사태 간부층에만 일부 전해(2/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은 정권 퇴진을 몰고 온 이집트 사태 소식의 자국내 전파를 차단하면서도 시위 상황을 간부들에게 부분적으로 알리는 등 민중봉기 가능성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 매체는 대북소식통을 인용, “북한 간부들에게 배포되는 ‘참고신문(소식)’에 이집트 시위 소식이 실렸으며, 이 신문은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체제를 무너뜨린 이번 사태의 동기를 이집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설명했다”고 보도

- **김정일, 주북 中대사관과 대보름 음악회 관람(2/18, 조선중앙TV)**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7일 저녁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주북 중국 대사관 직원과 함께 은하수 관현악단 음악회를 관람한 뒤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 중국측 인사들을 위해 연회를 열었다고 보도
 - 중앙TV는 김 위원장이 북중 양국의 전통적인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중국대사관 직원과 중국의 유학생, 실습생, 방북 중인 ‘중국 손님들’을 초대해 음악회를 관람했다고 밝혔으나 ‘중국 손님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음.
 - 김정은 외에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 위원장 여동생인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이 참석
 - 관람자 소개 때 후계자 김정은의 이름을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앞서 거명

- **北김정일, ‘친필정치’로 민심잡기 눈길(2/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들어 기업소 종업원·제대군인의 편지에 친필을 보내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 눈길을 끄.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지난 1월26일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종업원의 편지를 읽어보고 친필을 보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의 친필 전달은 올해 들어 3번째로, 지난해에는 재령광산 노동자들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만경대 가문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보낸 편지를 본 뒤 남긴 친필이 유일함.

● 北 ‘김정일 금고지기’ 38호실장에 김동운(2/20,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금고 역할을 하는 38호실장에 김동운 전 39호실장을 기용한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새로 건설된 ‘운산공구공장’ 현지도(2/11, 중통·중방)
 - 김기남(黨비서), 김경희(黨부장),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박도춘(黨비서), 주규창(黨부장), 리만건(平北道委 책임비서) 등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생일 앞둔 北 ‘서해 낙도에 선물’ 선전(2/15, 중방)
- 北 노동당 대표단-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대표단 사이 회담, 2/12 김영일(黨비서)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2/12, 중통)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 제92권 출판(2/14, 중통)

나. 경제

● 中연변, 통행증 발급 재개에 北관광 급증(2/14, 연변인터넷방송)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가 지난해 7월 외지인에 대한 변경관광 통행증 발급을 재개한 뒤 북한에 다녀온 관광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변경관광 통행증이란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신원만 확인되면 간단한 수속을 거쳐 1-2일 코스의 인접국가 관광을 허용하는 제도
- 연변 공안국이 지난해 7월 외지인 변경관광 통행증 발급을 5년 만에 재개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연변에서 북한을 관광한 외지인이 3천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

● 北 화폐개혁 후 8개월간 52명 공개 처형(2/15, RENK)

- 일본의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는 15일 한국의 한 대북 관련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개월간 박남기 조선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비롯해 52명을 공개 처형했다고 올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주장함.



- 북한은 화폐개혁 실패 책임을 물어 박 부장과 리태일 부부장을 지난해 3월 공개적으로 처형한 데 이어 같은달 신권 위조 화폐 37만6천원 어치를 만들어 돌렸다는 죄목으로 리모(당시 38세)씨 등 2명을 '본보기 차원'에서 처형
 - 또 화폐개혁 직후인 2009년 12월 함흥과 청진에서 시위 참가자를 각각 2명씩 처형했고, 지난해 7월에도 청진에서 불만을 담은 뼈라를 살포했다며 주민 2명을 처형하고, 동조자 3명을 무기징역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해 4월에는 '소매치기 범죄조직을 결성'하고 '김정일을 비난'했다는 죄목으로 평양시에서 일당 17명을 집단 처형했다는 정보도 있었음.
 - 이밖에도 지난해 1월(함흥)과 2월(청진), 7월(회령)에는 탈북자에게 휴대전화로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장 근로자와 재북 화교가 잇따라 처형됐고, 지난해 5월에는 평남 평성시에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으로 전해짐. 이 보고서에는 국내외 대북 매체들이 전한 북한의 공개처형 사례 중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음.
- **中훈춘-北라진 잇는 교통망 정비 본격화(2/15, 연변일보)**
 - 중국 훈춘(琿春)에서 라진항으로 통하는 취안허(圈河)통상구-북한 원정리 구간 신두만강대교 건설과 원정리-라진항간 도로 보수 공사가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열린 지린(吉林)성 인민대표대회 제11기 4차 회의에서 지린성 정부가 올해 사업 보고를 통해 훈춘시 취안허 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신두만강대교 건설을 위한 사전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 지린성 정부는 또 올해 원정리에서 라진항에 이르는 기존 도로의 개·보수 공사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 **북한 과학자대표단, 애틀랜타 방문(2/16, 연합뉴스)**
 - 북한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애틀랜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작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으로 중단됐던 미국과 북한간 민간차원의 교류가 새해들어 활성화될 전망이다.
 - 북한 과학자 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2007년 5월 결성된 민간단체인 '미·북 과학교류 컨소시엄'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평양의 국가과학원내 흥륜기 과학기술국제협력국장을 단장으로 김책공과대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짐.
 - **北中, 새 나선 투자정책 3월30일 발표(2/17, 연합뉴스)**
 - 방항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서울대표처 처장은 17일 "중국이 북한의 나선 경제특별구역에 20억달러(2조2천240억원가량)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3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안다"고 전함.



- 방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정기 조찬 간담회’에서 나선에 있는 중국 기업인을 인용, “아직 북한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함.
- 北, ‘구제역 보고서’ OIE에 제출…48곳서 발생(2/18,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자국 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구체적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Health, 통칭 국제수역사무국, OIE)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은 보고서에서 성탄절인 지난해 12월 25일 평양시 사동구역에서 소 6마리가 처음으로 구제역에 걸린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북한 전역의 48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돼지 1만7천522마리가 의심사례로 분류돼 9천959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소는 의심사례 1천403마리 중 500마리, 염소는 의심사례 165마리가 모두 구제역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제역으로 폐사한 돼지가 8천640마리, 소가 15마리로 집계됐으며, 살처분되거나 매몰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음. 구제역이 발생한 곳은 평양은 물론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 함경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지역이 망라됨.
- 北 105층 유경호텔, 외장공사 거의 종료(2/18, 교도통신)
 - 북한 평양에 건설 중인 105층 높이의 유경(柳京)호텔 외장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보도, 배포한 유경호텔의 사진에서도 유리 외벽을 두르는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을 알 수 있음.
 - 호텔 건설에 투자한 이집트 무선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에서 파견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4월15일 ‘고(故)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에 맞춰 호텔문을 열기 위해 앞으로 내장 공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함.
- 北도 구제역 난리…평양시 봉쇄(2/19, 자유아시아방송(RFA))
 -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고 평양시를 전면 봉쇄하고 방역작업에 나섰다 밝힘.
 - 이 방송은 ‘북한 내부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퍼지면서 ‘평양 통행증’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며 “평양과 평성 사이의 동북리 10호 초소(평양 출입 통제하는 국가안정보위부 초소)는 지방에서 온 차량이 평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으며 다른 10호 초소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힘.
- 북한, 왕겨 이용하는 발전설비 개발(2/19, 평양신문; 이타르타통신)
 -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벼의 겉껍질인 왕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새로운 설비를 개발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18일 평양발로 보도

- 통신은 이날 북한 '평양 신문'을 인용해 현지 국립열기기술연구소가 연료 및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관한 국가 지도부의 지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설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함.
- 설비는 가스생산 화로와 냉각 및 여과장치, 모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왕겨 가열 가공 과정을 거쳐 고(高) 가연성 가스로 변환되고 이 가스가 연소하면서 발전기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한다고 통신은 설명, 새 설비는 1시간 동안 100kg의 왕겨를 태워 5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北, 흑한, 구제역에 軍도 식량부족(2/20, 워싱턴포스트(WP))**

- 북한이 최근 흑한과 구제역 등으로 군(軍)에서도 식량부족이 심각해지자 위협 대상이던 외국 정부에까지 이례적으로 '구걸'의 손을 내밀고 있다고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해외 주재 대사관과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외국 정부에 식량원조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림.

다. 군사

● **평양에 폭동진압용 탱크 부대(2/15, 자유아시아방송(RFA))**

- 평양 시내 한복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부대인 호위사령부 소속 탱크부대가 있다고 보도
- "평양 대동강구역 문흥고등중학교 뒤쪽에 호위사령부 소속 탱크 50여대가 있고 1개 대대급 부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기동훈련을 한다"는 평양 출신 탈북자 김정미(가명)씨의 증언을 전함.

● **北 김정일 생일선물용 잠수함 건조 차질(2/16, 데일리NK)**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에 맞춰 상어급(길이 33m, 300t급) 잠수함을 건조해왔으나 심각한 경제난에 따른 군수품 공장 종업원들의 잦은 결근 등으로 조립 작업을 마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데일리NK는 16일 함경북도 청진시 소식통을 인용해 함북조선소 내 군수품공장이 함경남도 신포시 소재 '봉대 보일러 공장'에서 만든 잠수함 본체를 옮겨와 김 위원장에게 충성의 생일 선물을 올리기로 결의하고 내부제작과 설비 일체 등을 설치하는 조립작업에 진력해왔으나 근로자들의 결근 등으로 차질을 빚어왔다고 전함.

● **北, 제2 미사일 발사타워 공사 끝낸 듯(2/17, 워싱턴포스트(WP))**

- 북한이 제2 미사일 기지의 발사타워 공사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높이 100피트(약 30m)의 현대식 발사타워 옆에 커다란 발사대가 설치돼 있는 것이 포착함.



- 북한은 그동안 동북지역(함경북도 무수단리)에 상대적으로 작은 발사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새로운 발사시설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서북(평안북도 동창리) 쪽에 세워졌으며 군사적 타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분석가들은 최근 2년간 북한이 새로운 발사타워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제2의 발사타워가 완공됐다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북한의 최우선 순위 가운데 하나임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평가함.
 - 이와 관련해 정보당국 관계자는 “한미가 외신 보도 내용과 유사하게 정보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는 지난 2008년 5~6월 장거리 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로켓의 엔진 성능 실험을 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함.
 - 당국자는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특이동향은 없다”며 “북한이 여기저기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였으며, 북측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작년 北 전투기 여러 대 떨어졌다(2/17, 연합뉴스)**
 - 북한군이 지난해 한·미 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고강도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다가 여러 대의 전투기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우리측도 추락사고가 있었지만 북한측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함.
 - 지난해 12월 중순 한미 연합훈련 기간 북한 공군 전투기 1대가 추락한 사실이 공개된 적이 있으나 여러 대의 전투기가 떨어졌다는 정보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北, 풍계리 핵실험장서 갱도 여러개 굴착(2/10, 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여러 개의 지하 갱도를 추가로 굴착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풍계리에서 여러 개의 지하 갱도를 추가로 뚫는 것을 한미 정보당국이 포착했다”면서 “3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명백한 증거로 분석된다”고 밝힘.
 - 소식통은 몇 개의 갱도를 추가로 굴착하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최소한 2~3개로 추정되고 있음.
 - 군은 북한의 이런 동향에 대해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같은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



라. 사회·문화

- **北 “동유럽 청년들 속물됐다”…반체제활동 비난(2/15, 평양방송)**
 - 스마트폰의 폐해를 부각했던 북한이 이번엔 라디오방송을 통해 동유럽 사회주의를 붕괴시킨 반체제 활동을 비난하면서 청년들의 정신무장을 강조
 - 방송은 14일 오후 8시40분 ‘명언해설’ 시간에 ‘새세대들의 정신도덕적 풍모를 보면 그 나라 그 민족의 전도를 알 수 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소개하면서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동유럽 청년들은 자본주의의 썩고 병든 문화에 물젖어 전세대들이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빚어냈다”며 “청년들이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 사상에 물젖게 되면 당과 국가의 이익, 인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속물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고 비난
- **北여성, 500위안에 인신매매 자원(2/15, 열린북한방송)**
 - ‘황해북도 사리원 소식통’의 언급을 인용해 “중국행을 원하는 사리원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자원하고 있는데 이들은 몸값으로 중국돈 500위안(한화 약 8만5천원)에라도 팔려가고 싶어 한다”고 밝힘.
 - “여성들은 사리원 역전에 나가 ‘민박주문을 받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장거리 여행객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민박제공을 빌미로 탈북 브로커를 연결해줄 사람과 만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함.
- **노동신문도 홈페이지 개설…北 인터넷 ‘적극’ 행보(2/16, 연합뉴스)**
 - 노동신문의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사이버상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시선을 끄. 노동신문은 그동안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기사를 올려왔으나 이제는 따로 ‘rodong.rep.kp’라는 주소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사를 올리고 있음.
 - 홈페이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 항목별로 기사를 분류해 제공하며 ‘조국통일’이라는 항목도 있어 눈길을 끄.
- **중국 내 탈북여성 80% 인신매매 대상(2/16, 연합뉴스)**
 - 중국 내 탈북 여성의 80%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전 솔티 대표가 주장, 워싱턴 D.C.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중국의 ‘한 자녀 운동’ 정책의 결과 중국 내에 여성들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힘.
- **北 첫 女복싱챔프 김광옥 코치 변신(2/19, 조선신보)**
 - 지난 2004년 북한 여자복싱 사상 최초로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김광옥(33)이 중앙체육학원의 ‘권투교원(복싱코치)’으로 변신했음. 조선신보는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하다 프로로 전향해 국제여자복싱



협회(IFBA)와 세계여자복싱평의회(WBCF) 챔피언을 모두 따냈던 김광옥의 근황을 소개

● 세계기상기구 전문가팀, 3월 중순 방북(2/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기상기구(WMO)가 오는 3월 중순 일주일 일정으로 북한에 전문가팀을 파견해 기상 관측소 현황을 파악하고 기상관측기구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고 보도
- WMO 본부는 “북한 수문기상국과 수차례 협의 끝에 전문가팀을 오는 3월 18일부터 25일까지의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기상예보, 기후예측을 위한 관측소·통신망에 대한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힘.

● 北, 인터넷·휴대폰 정보전파 연일 경계(2/20,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이집트 혁명의 성공에 인터넷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힘을 발휘한 가운데 북한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를 경계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음.
- ‘중국이 훌륭한 사회적 분위기 마련에 주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음력설 기간 건전하고 안정한 사회질서를 담보하기 위해 전국 ‘황색숙청 및 비법출판물타격’ 사업소조판공실의 사업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힘.
- 이어 “각지에서 인터넷 및 손전화기를 통한 추잡하고 색정적인 정보 전파를 타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적소유권 침해와 가짜 및 저질상품 제조, 판매행위를 타격하기 위한 특별행동을 중점으로 해 훌륭한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
- 또 “관련사업 내용에는 시장에서의 조화로운 문화적 분위기를 마련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할 것과 생산을 적극 이끌어 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것 등이 반영됐다”고 전해 시장의 기능을 긍정하는 듯한 언급마저 하기도 했음.
- 조선중앙방송도 19일 ‘서방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제24차 황색숙청 및 비법출판물 타격사업 회의가 지난 1월14일 베이징에서 진행됐고, 200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인터넷 및 손전화기를 통한 추잡하고 색정적인 정보 전파를 타격하는 특별행동이 적극 벌어져 많은 성과가 달성됐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강원도에도 폭설...금강군에 1.2m(2/14,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무바라크 퇴진에도 ‘이집트 사태 침묵(2/14, 연합뉴스)**
 - 외신을 전하는 창구인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매체인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은 튀니지 시민혁명 영향으로 지난달 17일 촉발된 이집트 사태에 대해 14일 현재까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음.
 - 흥미로운 점은 중앙통신이 지난 11일 ‘미국의 꿀칫거리 스마트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의 산물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마약과 무기를 감옥에 밀반입하는 등 바깥세상에서와같이 활개치고 있다”고 전한 대목
 - 겉으로는 미국 사회의 폐해를 선전하면서도 실제로는 휴대전화와 SNS의 폐해를 은근히 강조함으로써 스마트폰 등을 통해 민주화 바람이 주민에게 스며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임.
- **北방송, 中후진타오, 북중관계 발전 만족(2/16,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북중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후 주석은 14일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나서 가진 환담에서 “최근 두 나라 사이의 경제무역관계가 발전하고 내왕과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중대한 국제문제들에서 의사소통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北선원 태운 선박, 中다론헌서 침수 사고(2/17, 신화통신)**
 - 지난 16일 새벽 북한 선원 17명을 태운 시에라리온 국적의 컨테이너 선박이 중국 다론헌(大連)항에서 하역 작업 도중 침수, 크게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선원들이 긴급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보도
- **北외무성, 對日수교 전제로 과거청산 요구(2/17, 조선신보)**
 - 북한 외무성은 과거청산에 대한 자세가 북일(北日) 관계정상화 실현의 시금석임을 강조했다고 보도,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 외무성 관계자 말을 인용, “연초부터 일본 당국자들이 조일(朝日) 간 현안 문제와 관계개선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일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서 기본은 과거청산으로, 이에 대한 일본의 자세가 관계개선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된다”고 밝힘.
- **北리용남 무역상 방리…러 지역장관과 회담 예정(2/19, 연합뉴스)**
 - 연평도 포격 사건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 등으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 몰려 있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방안 모



색에 나섬.

- 러·북 정부간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경제협력위) 북측 위원장인 리용남 무역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21일 경제협력위 러시아측 위원장 빅토르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과 회담한다고 러시아의 대북 전문가가 밝힘.

● 유엔, 주요국에 대북지원 협조요청(2/19, 미국의 소리(VOA))

- 유엔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15개 주요 대북 원조국에게 미화 8천2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
-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 17일 뉴욕 본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15개 주요 대북 원조국에게 식량과 의약품, 식수 등 총 8천260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음.

● 中외교부 상무부부장 방북, 김계관과 회담(2/20, 조선중앙통신)

- 장즈진(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20일 평양에 도착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수대 의사당에서 회담을 했다고 밝힘.
-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김성기 부상을 비롯한 외무성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서 장 부부장 일행과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회담에서 쌍방은 조중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음.

나. 6자회담(북핵)

● 美, 北, ICBM 관련기술 실험 다수성공(2/17, 연합뉴스)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6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는 물론 역외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힘.
- 클래퍼 국장은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인정을 함께 갈망하고 있다”면서 “또 북한은 핵기술들을 판매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왔다”고 전함.

3. 대남정세

● 北김영남, 南, 대화 파탄 책임지게 될 것(2/15, 조선중앙TV)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5일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파탄시키고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파국적 후과(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9회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2.16경축 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대화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함.
- 이날 보고대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불참했고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대신 최영림 내각 총리와 김기남·최태복·최룡해·태종수·박도춘·김기남·김양건 당 비서, 김영춘·장성택·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강석주·리태남·김락희 내각 부총리 등이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참석

● 北, 金부자 비난글 트위터 한달넘게 방치(2/17, 연합뉴스)

- 북한이 자국의 대남선전 웹사이트가 운영하는 트위터에 올라온 김정일 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비난글을 한 달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김정은의 생일인 지난달 8일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운영하는 트위터에 올라온 ‘김정일 력도(역도)와 아들 김정은을 몰아내 새 세상을 만들자!’, ‘조선인민군대여! 핵과 미사일 개발에 14억 달러를 낭비(낭비)한 김정일 역도에게 총부리를 겨누자’는 등 김 위원장 부자를 비난하는 글 4건이 38일이 지난 17일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음.

● 北 “개성공단회담 성원부탁”...입주기업에 편지(2/19, 연합뉴스)

- 북한이 이달 초 남북 간 개성공단 회담 개최의 지원을 촉구하는 편지를 입주 기업들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됨.
- 통일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북측은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명의로 2월 6일께 입주기업들에 편지를 보내왔음.
- 북측은 편지에서 “우리는 선생이 공업지구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침체된 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 해나가기 위해 우리가 제의한 개성공업지구 실무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리라고 믿는다.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풍계리 핵실험장서 갱도 여러개 굴착”(2/20)

-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여러 개의 지하 갱도를 추가로 굴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0일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풍계리에서 여러 개의 지하 갱도를 추가로 뚫는 것을 한미 정보당국이 포착했다”면서 “3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명백한 증거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소식통은 몇 개의 갱도를 추가로 굴착하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최소한 2~3개로 추정되고 있음. 그는 “뚫었던 갱도는 한 번 핵실험을 하면 다시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추가로 갱도를 여러 개 굴착하는 것은 핵실험의 가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풍계리에 굴착한 지하 갱도는 ‘ㄴ’자 모양으로 추정되며, 핵실험에 필요한 최적의 갱도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갱도를 굴착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 그는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 등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외부에 공개해 목적을 달성했고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플루토늄탄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군당국은 이와 관련, 북한이 올해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동시 위협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합참이 3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공기부양정 기습 등 북한의 다중위협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와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동창리 미사일기지가 완공됐다고 보도가 되는데 아직은 다 완공된 상태가 아니다”며 “공기부양정 70여 척을 수용할 수 있는 황해도 고암포 해군기지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기부양정 1~2척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 “안보리 ‘北 UEP 보고서’서 中관련 언급 삭제”(2/19)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측이 자국과 관련된 언급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해 관철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뉴욕발로 보도했음.
- 복수의 안보리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서 원안에는 과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 핵개발에 사용할 정밀기기를 조달하려고 했다’는 언급이 포함돼 있었음.
- 이에 대해 다른 멤버는 “IAEA의 공식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지만, 중국측 멤버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제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또 보고서의 공개에도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 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에게 보여준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 발전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주로 군사 목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밖에도 비밀 농축 관련 시설이 복수 존재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적었고, 또 “2009년 봄부터 1년 반 동안 건설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1990년대부터 개발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에 따라 구성된 대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과 일본이 한 명씩 파견해 7명으로 이뤄져 있음.

● “美, 핵확장억제 작계 8010-08 완성”(2/19)

- 미국은 최근 동맹국에게 핵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한 ‘작전계획 8010-08’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미국과학자연맹(FAS) 등에 따르면 미국은 잠재적 적성국이 동맹국에 공격을 가할 경우 핵 무기 및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8010-08을 완성했음.
- 지난 2008년 2월부터 적용된 이 계획에는 잠재적 적성국을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로 명기했음. 작계 8010-08은 적성국이 동맹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1시간 이내 핵우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래식 무기 등의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도록 했음.
- 특히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은 네브래스카 오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의 타격 수단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 등으로 핵시설을 정밀타격하게 됨. 타격 목표는 군사시설과 대량살상무기(WMD), 군사지휘부 및 국가기간 시설, 전쟁지원 시설 등임.
- 한·미는 다음달 말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첫 본회의를 개최해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의 구체적 수단과 방법 등을 의제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임.



● 美사령관 “北, 미사일 시험 징후 없어”(2/18)

-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17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제2 미사일 기지를 완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 “조만간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 윌러드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아태 지역 안보 유지와 안정’ 주제 간담회 및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주요한 우려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단시일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 윌러드 사령관은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의 구체적인 장소와 능력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윌러드 사령관은 “지난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과 북한 권력승계 과정의 복잡한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 미사일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거리임에 틀림없다”고 부연했다.
- 윌러드 사령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과정은 “압축적인 일정”으로 이뤄지고 있고 강제력을 통해 김정은의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고 진단한 뒤 “수 개월내에 또 다른 도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 그는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이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양자동맹 차원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취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다음에 도발을 하면 중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북한이 그동안 대통령 암살시도, 청와대 습격 시도, 여객기 격추, 재래식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해올지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윌러드 사령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가능성도 미 행정부 차원은 물론 국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오는 28일부터 실시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합동 군사연습은 한미 양군의 전투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방어위주의 연례 야전 훈련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키 리졸브’ 연습은 양국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내년에도 이 연습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 “北 미사일 발사준비 징후 없어”(2/17)

- 정부 당국자는 17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제2미사일 기지를 완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이 당국자는 또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특이동향은 없다”며 “북한이 여기저기 식량 지원을 요청



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 특히 정부는 동창리 기지가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이 기지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대화국면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북한이 긴장조성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도쿄발로 북한이 제2미사일 기지의 발사타워 공사를 끝낸 것으로 보이고 높이 100피트(약 30m)의 현대식 발사타워 옆에 커다란 발사대가 설치돼 있는 것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음.

● “北, 제2 미사일 발사타워 공사 끝낸 듯”(2/17)

- 북한이 제2 미사일 기지의 발사타워 공사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 도쿄발로 보도했음.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높이 100피트(약 30m)의 현대식 발사타워 옆에 커다란 발사대가 설치돼 있는 것이 포착됐음.
- 북한은 그동안 동북지역(함경북도 무수단리)에 상대적으로 작은 발사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새로운 발사시설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서북(평안북도 동창리) 쪽에 세워졌으며 군사적 타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신문은 또 “분석가들은 최근 2년간 북한이 새로운 발사타워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제2의 발사타워가 완공됐다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북한의 최우선 순위 가운데 하나임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음.

● 美 “北, ICBM 관련기술 실험 다수성공”(2/17)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6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는 물론 역외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음. 클래퍼 국장은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인정을 함께 갈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또 북한은 핵기술들을 판매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왔다”고 말했음.
- 클래퍼 국장은 또 상원 정보위에 제출한 연례안보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이 1998년 대포동 1호를 시험발사한데 이어 2006년과 2009년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언급한 조그만 통신 위성을 궤도로 진입시키는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많은 기술들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고 평가했음.



- 그는 이어 “비록 대포동 2호 발사가 실패했지만, 2009년 실험은 2006년 도보다 좀 더 완성된 성능을 보여줬다”면서 “북한의 대포동 2호 개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능력을 얻으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 클래퍼 국장은 “만일 ICBM으로 만들어진다면 대포동 2호는 최소한 미국의 일부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포동 2호나 관련 기술이 수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음.
- 한편 클래퍼 국장은 이날 북한군의 전력이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공할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3월 천안함 공격이 증명하듯이 북한은 역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음.

나. 미·북 관계

● 북, 지난달 美측에 군사회담 제의(2/19)

- 북한이 지난달 미국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했지만, 미측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음. 정부 소식통은 19일 “지난달 25일 북한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앞으로 북-미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북측은 회담 의제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과 비핵화 문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문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주중 미 대사관을 통해 이 같은 제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음. 북측의 회담 제의는 지난달 20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지 닷새만임.
- 미측은 그러나 북-미대화애 앞서 남북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등은 북미 고위급 군사회담이 아닌 군사정전위원회 체제를 통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최근 북측에 거부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은 “북측의 북-미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와 이에 대한 거부 방침을 미측이 우리 정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美상원의교위, 내달 1일 북한 청문회(2/19)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존 케리)가 다음달 1일 ‘북한의 도발 주기 끊기’를 주제로 북한 관련 청문회를 갖기로 했음. 이번 청문회는 남북간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임.
- 청문회에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출석할 예정이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후반의 대북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됨.



- 또 지난해 11월 미국의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와 함께 방북해 영변 우라늄농축 시설을 보고 돌아온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 및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함.
- 앞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달초 의회에 제출한 ‘연례안보위협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김정은 후계체제 강화를 위해 추가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로버트 월러드 미 태평양군사령관도 17일 “수 개월내에 또 다른 (북한의) 도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등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미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임.

● 벨 前사령관 “北붕괴 확신은 근시안적 시각”(2/17)

- 이달 28일 열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의 급변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며, 북한의 붕괴 가능성도 매우 낮은 편이라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17일 평가했음.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키 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시지휘 기능과 군사적 대응체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며 “이를 북한의 급변 사태 대응용으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 벨 전 사령관은 이어 북한 같은 강력한 군부체제 국가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붕괴를 확신하는 건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말했음. 그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면 안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가 정권을 잡은 뒤에야 대북 대화를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못박았음.
-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세에 대응 방안으로는 “북한에 지속적인 경제·기술적 제재로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중국에도 강한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동아시아 불안정의 원인은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중국 측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것임.
-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의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군사공격 징후를 주시해 군사장비와 부대의 전진배치 등 전면전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미국과 한국,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협의 아래 군사공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음.

● 美 “北, 약속준수하고 대화환경 조성해야”(2/17)

- 미국은 16일 북한이 제2의 미사일발사 시설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 “우리는 북한에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은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이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않으면서 이같이 말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또 남북한 및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대화가 유용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했음. 그는 “불행하게도 북한은 한국과 생산적인 대화를 가질 기회를 가졌으나, 그런 대화들이 생산적이었다는 시사는 없었다”면서 “북한이 갑자기 그런 대화들에서 떠나갔다”고 지적했음.
- 그는 이어 “북한은 자신들이 약속을 준수하는데 진지하다는 것을 미국 및 다른 국가들에 증명해야 한다”면서 “그들이 그런 진지함을 증명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적절한 것(대응)인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 밖에 그는 대북식량 지원문제와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계속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그 이상은 지금으로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음. 그는 “분명한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식량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중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음.

● 美, 김정철 외유 소식에 “개방하라” 압박(2/17)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차남인 김정철이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관람한 사실이 전해지자 미국 국무부는 아들보다도 김정일이 더 밖으로 자주 나오고 북한을 개방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김정일의 아들이 클랩턴의 콘서트에 참석했다고요?”라고 놀란척 하면서 “사실은 친애하는 지도자 자신이 좀 더 자주 밖으로 나오으로써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물론, 북한 주민이 클랩턴을 즐기고 좀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정일이 북한을 개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 추가해서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 트위터를 통해 그들을 위해 말한 것을 놔두자”면서 “그(김정일) 가족이 좀 더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개방과 외부세계 노출의 필요성을 지적했음.

● 북한 과학자대표단, 애틀랜타 방문(2/16)

- 북한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애틀랜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작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으로 중단됐던 미국과 북한간 민간차원의 교류가 새해들어 활성화



될 전망이다.

- 북한 과학자 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2007년 5월 결성된 민간단체인 ‘미·북 과학교류 컨소시엄’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평양의 국가과학원내 홍륜기 과학기술국제협력국장을 단장으로 김책공과대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북 과학교류 컨소시엄’은 미 시라큐스대와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그리고 워싱턴 소재 ‘미국민간연구개발재단’의 주도로 2007년 5월 결성된 단체로 그동안 미북간 민간차원의 과학기술 교류·협력 사업을 주도해 왔음.
- 북한 과학자 대표단은 9일 애틀랜타에 도착, 카터센터를 방문해 보건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이어 조지아텍도 방문해 과학분야 연구소와 실험실을 둘러보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대표단은 또 14일 에선스시에 있는 조지아대(UGA)를 방문해 스캇 앵글 농업환경과학대학장과 국제문제연구소(Globis) 소장인 박한식 석좌교수 등과 만나 미북간 민간차원의 교류강화 방안을 협의했음. 이어 바이오 연료와 줄기세포 관련 연구소를 시찰하고, 저녁에는 정보통신(IT) 분야 교수들과도 만나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15일 귀국길에 올랐음.
- 박한식 교수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과학자 대표단이 9일부터 애틀랜타를 방문했으며, 14일에는 UGA를 방문해 다양한 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북한 대표단의 방문 사실을 확인했음.
- UGA는 2008년 7월 스캇 앵글 농업환경과학대학장과 북한문제 전문가인 박 교수 등을 평양에 보내 북한 농업과학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난 2001년 조지아대 농대와 농업과학원간에 체결했던 교류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두 기관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었음.
- UGA는 특히 북한의 식량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종자개발 등 선진 농업기술의 이전과 북한 농대에 대한 실험기재 지원 그리고 북한 농업·과학 전문가의 미국 초청연수를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음.
- 북한 과학자들은 UGA 등 애틀랜타 방문을 통해 바이오 연료, 줄기세포 연구 등 첨단 생명과학분야는 물론이고 경영정보(MIS)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음.

● 미국무부 “필요시 北지원 예산 있다”(2/16)

- 미국 국무부는 15일 북한의 민주화 증진을 위한 경제지원기금(ESF)이 2012 회계연도에 별도 항목으로는 책정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요구가 있을 경우 지원할 예산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국무부가 매년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 필요한 250만~350만달러 규모의 경제지원기금을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
- 이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된 요구가 있다면, 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2012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 때문에 북한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해 편견을 갖고 우리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빠듯한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 등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계획 여부에 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에 식량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 국무부는 북한 민주화 지원을 위해 매년 책정해 왔던 250만~350만달러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채 전날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무부는 2011회계연도에는 관련 예산으로 250만달러를 책정했었다.

● 美 “대북 식량지원 계획없다” 재확인(2/16)

- 미국 국무부는 15일 현 시점에서 북한에 식량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식량지원 계획은 없다”면서 “이 문제는 북한의 상황을 매우 면밀히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만일 북한으로부터 식량지원에 관한 요청이 있게 된다면, 지원된 식량이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진짜로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배분되는지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는 구체적인 조건이 붙게 될 것이라고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강조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미국이 50만t의 식량지원을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는 “그 질문은 우리가 어떤 (식량지원) 계획을 검토중이냐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즉답을 피했다.

● 美의원, 대북식량지원 ‘모니터링’ 전제돼야(2/14)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인디애나) 의원은 14일 대북식량지원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모니터링이 확보된 뒤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거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어떤 식량지원 재개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모니터 요원들의 접근과 책임을 북한이 허용하는 조건에서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주민들보다 우선에 있는 북한 군부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원이 끊겨진 북한의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09년 북한이 미국 식량분배감시 요원들을 추방할 당시 남겨뒀던 2만2천의 식량에 대해 미·북 양측이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루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면서 ‘대북 식량지원 재개와 관련된 북한의 요청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현재 진행중인 재검토에 대한 루거 의원의 성명’이라고 언급,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미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전했다.

다. 중·북 관계

● 中외교부 상무부부장 방북, 김계관과 회담(2/20)

- 장즈쥘(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20일 평양에 도착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수대 의사당에서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김성기 부상을 비롯한 외무성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서 장 부부장 일행과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 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조중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 北김정일, 대보름 中인사 초청 음악회(2/18)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정월대보름인 17일 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주재 중국인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고 신화통신이 18일 보도했다.
- 2007년 김 위원장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중국 대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북한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중국인들을 위한 경축행사를 따로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최근 부쩍 가까워진 북중관계를 외부에 과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정월대보름인 원소절(元宵節)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린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에는 류홍차이 중국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원들, 유학생, 경제인들이 초대됐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은,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등 당·정·군의 최고 지도자들이 나왔다. 신화통신은 전했다.
- 북한 언론들이 김 위원장의 생일인 16일을 기점으로 후계자 김정은을 리영호 부위원장보다 먼저 소개하는 가운데 신화통신 또한 이날 기사에서 김정은을 김 위원장 다음으로 거명했다. 그러나 신화통신이 보도한 음악회 사진 속에서 김정은은 부친 김 위원장 오른쪽으로 리영호 부위원장 다음으로 세번째 자리에 앉았다.



- 신화통신은 “동방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과 북한은 공통의 민속풍습이 있는데 원소절도 그 가운데 하나”라면서 오곡밥과 9색 나물을 먹고 달맞이를 하는 북한의 정월대보름 풍속을 소개했음. 그러면서 신화통신은 이번 원소절 음악회를 통해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정을 깊이 나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음.
-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피로 맺어진 조중친선의 뜨거운 열기가 세차게 끓어올랐다”며 북·중간 우의를 강조했다.

● 北방송 “中후진타오, 북·중관계 발전 만족”(2/17)

- 북한 평양방송은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북·중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16일 전했다.
- 이 방송에 따르면 후 주석은 14일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로부터 신 입장을 받고 나서 가진 환담에서 “최근 두 나라 사이의 경제무역관계가 발전하고 내왕과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중대한 국제문제들에서 의사소통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끊임없이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며 “중국측은 조선(북)측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중·조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후 주석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선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평양방송은 덧붙였다.

● “北中, 새 나선 투자정책 3월30일 발표”(2/17)

- 방홍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서울대표처 처장은 17일 “중국이 북한의 나선 경제특별구역에 20억달러(2조2천240억원가량)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3월30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안다”고 전했다.
- 방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정기 조찬 간담회’에서 나선에 있는 중국 기업인을 인용, “아직 북한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중국이 북한 나진항을 이용해 훈춘(琿春)-상하이(上海) 간 석탄을 싣는 물류선박을 운행하는데 북한을 통한 무역이지만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 무역과 같이 이뤄진다”며 “다롄(大連)의 환경설비 제조업체인 창리그룹이 임차한 뒤 수리·보수한 나진항 1호 부두를 이용하는데 나진항 임대료에 관세가 포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또 “중국이 북한의 원정리-나진항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주기로 했었으나 실제 물류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현재는 3급 도



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춘절(구정)기간에 설계팀이 북한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 방 처장은 “최근 나진지역에 중앙에서 파견된 40대 젊은 간부들이 대거 부임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이들 중 다수는 중국 통으로 예전 간부들에 비해 엔지, 창춘 지역 출장이 잦고, 나진 시장은 1주일에 한번씩 기업에 사람을 보내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줄 정도로 경제협력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 中언론, 北김정일 생일맞이 일제히 보도(2/16)

- 중국 언론매체들이 1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맞이 행사를 일제히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음. 관영 신화통신은 평양에서 15일 열린 수중발레(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공연에서 김 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을 수중발레 단원들이 물 위에 꽃으로 연출하는 사진을 신화망에 게재했음.
- 신화통신은 이날 별도의 기사에서 조선중앙TV가 14일 보도를 통해 출생 69주년이 되는 김 위원장의 출생지는 백두산이라는 점을 포함해 김 위원장의 여러 면면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두산 폭풍속에 선 김 위원장을 그린 그림을 관람하는 사진도 실었음.
-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도 북한 매체를 인용해 2월 16일이 김 위원장의 69세 생일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1942년 북중 접경의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으며 1997년 10월에 조선노동당 총서기로 추대되는데 이어 2009년 4월 국방위원장에 재선됐고 작년 9월 노동당 서기로 재추대됐다는 약력을 소개하기도 했음.
- 중국신문사는 백두산 정일봉에 버들꽃이 피고 백두산 밀영의 김 위원장 생가에 햇무리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런 독특한 자연현상이 정일봉 지역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라는 북한 매체의 ‘우상화 성향’의 보도 내용도 인용해 전했다.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신화통신을 글 기사와 사진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생일을 소개했음. 중국내 신문매체와 주요 포털사이트들도 평양의 수중발레 사진을 포함해 북한내 김 위원장의 생일맞이 행사를 전했다.
- 문제의 수중발레 공연은 평양시 창광원 수영장에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경축하기위해 열린 것으로 행사에 리태남 내각 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박명철 체육상 등이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아울러 전날 열린 평양 주재 외교사절의 공식행사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권력 2인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찬양가로 알려진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반주곡으로 쓰였다고 교도통신이 평양 발로 보도했음.
- 또 중국 관영 CCTV는 15일 저녁 방영된 종합뉴스 프로그램 ‘신원렌보(新聞聯播)’에서 13~15일 방북한 멩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과 김 위원장의 회견과 만찬을 보도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비춰 눈길을 모았음.

- CCTV는 환영만찬장의 메인 테이블에서 김 위원장 옆의 명 국무위원의 바로 옆에 앉은 김정은을 부각시키는가 하면 명 국무위원과 김정은 간의 건배와 악수 장면을 편집해 내보냈음. CCTV는 이 보도에서 김 위원장의 생일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평양 거리를 비추면서 ‘2.16 경축’이라는 플래카드를 보여줘 사실상 김 위원장 생일 축하를 암시하기도 했음.

● 中훈춘-北라진 잇는 교통망 정비 본격화(2/15)

- 중국 훈춘(琿春)에서 라진항으로 통하는 취안허(圈河)통상구-북한 원정리 구간 신두만강대교 건설과 원정리-라진항간 도로 보수 공사가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열린 지린(吉林)성 인민대표대회 제11기 4차 회의에서 지린성 정부가 올해 사업 보고를 통해 훈춘시 취안허 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신두만강대교 건설을 위한 사전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고 연변일보가 15일 보도했음.
- 지린성 정부는 또 올해 원정리에서 라진항에 이르는 기존 도로의 개·보수 공사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중국이 취안허-원정리-라진항 구간 교통망을 서둘러 정비, 라진항을 이용하는 동해 항로 운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됨.
- 2008년 북한으로부터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중국은 라진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 취안허-원정리 구간 기존 두만강대교를 보수했으며 훈춘에서 라진항을 거쳐 남방으로 운송될 물동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이 다리를 대체할 신두만강대교 건설도 함께 추진해왔음.
- 기존 다리 상류 50m 지점에 세워질 신두만강대교는 577m 길이에 왕복 4차로(폭 25m)로 건설되며 완공되면 연간 120만t의 물류를 통관할 수 있게 됨. 1936년 세워진 기존 다리는 폭이 6.6m에 불과해 차량의 교차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통관량이 60만t에 그쳤음. 중국은 또 원정리-라진항 구간 54km 비포장도로 개·보수에도 나서 지난해 9월 실시 설계에 착수했음.

● 中신화, 김정일-명젠주 회견 보도(2/15)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4일 평양에서 명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을 회견했다고 15일 보도했음. 김 위원장은 회견에서 “올해는 조·중 우호협력조약 서명 50주년이로 양국 공동으로 일련의 기념활동을 가졌다”며 “당면한 국제정세에서 양국은 반드시 밀접하게 왕래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김 위원장은 이어 “중국 공산당이 창당 90주년을 맞는 것을 환영하며 중국 인민이 공산당의 영도로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더 큰 성취를 이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이에 명 국무위원은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당과 국가 지도자들의 안부를 전했다.
- 명 국무위원은 그러면서 “중·조 수교 60여년 동안 우호협력이 관계가 부단하게 공고한 발전을 해왔으며 양국 고위층의 교류가 빈번하고 경제 및 무역협력, 문화교류가 확대돼 왔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도 양국이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각자 발전은 물론 공동이익을 지키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 명 국무위원은 또 “김 위원장의 영도로 조선인민이 각종 곤란을 이겨내고 국가건설이 성과를 거둬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은 조선과 함께 양국 최고지도자들의 공통의 인식을 실현하고 중·조 우호관계를 잘 계승, 전수, 발양시키고 전진시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화통신은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돼 조선혁명의 계승 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는 명 국무위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신화통신의 이런 보도태도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세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음.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과 명 국무위원 외에 북한측의 강석주 내각 부총리가 참석한 회견 사진을 게재했음. 신화통신은 이와함께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만수대의사당에서 명 국무위원을 맞아 환담을 나눴다고 보도했음.

라. 일·북 관계

● 北외무성, 對日수교 전제로 과거청산 요구(2/17)

- 북한 외무성은 과거청산에 대한 자세가 북일(北日) 관계정상화 실현의 시금석을 강조했다.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7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 외무성 관계자 말을 인용, “연초부터 일본 당국자들이 조일(朝日) 간 현안 문제와 관계개선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일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서 기본은 과거청산으로, 이에 대한 일본의 자세가 관계개선 의지를 기는 시금석으로 된다”고 밝혔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달 25일 ‘조일관계 해결의 근본은 과거 청산’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 당국에 과거청산의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으나 북한 외교 당국자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 외무성 관계자는 “무슨 일이나 순차가 있다. 조일관계에서는 일본의 과거청산이 선결돼야 하며 그러면 조일 사이의 기타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다”며 “일본에서 정권이 바뀐 만큼 지난 시기의 테두리를 벗어나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 북일 수교 협상은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6자회담의 틀로 편입됐고, 그해 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첫 북일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시작으로 2008년 8월 중국 선양(瀋陽) 실무협의회에서 일본인 피랍자 재조사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북핵 협상이 꼬이면서 중단됐음.

● 日 매체, 北의 ‘계승 문제 해결’ 주장에 주목(2/16)

- 일본 언론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 69세 생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벌인 사실을 전하는 가운데 ‘후계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한 점에 관심을 쏟았음.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자 조간 국제면 관련 기사에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이 15일 김 위원장과 명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의 회담(14일)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측이)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돼 조선 혁명의 계승 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북한 공식 매체가 ‘계승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아사히신문도 이날 국제면 관련 기사에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일-명젠주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혁명의 계승 문제가 빛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한 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삼남 김정은씨에게 권력이 수월하게 계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음.

마. 기 타

● 北리용남 무역상 방러..러 지역장관과 회담 예정(2/19)

- 연평도 포격 사건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 등으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 몰려 있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임. 러·북 정부간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경제협력위) 북측 위원장인 리용남 무역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21일 경제협력위 러시아측 위원장 빅토르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과 회담한다고 러시아의 대북 전문가가 19일 밝혔음.



- 리 무역상은 모스크바 방문에서 2007년 3월 제4차 회의 이후 현재까지 중단돼 있는 러·북 경제협력위 재개 문제와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 전문가는 전했다.
- 바사르긴 장관도 18일 현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 장관은 인터뷰에서 “러·북 양측은 지난해 8월 평양에서 열린 양국 경제협력위 위원장 간 회담과 지난해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경제협력위 활성화와 지역 차원에서의 관계 확대, 기업 간 교류 관계 수립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21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리 무역상과 만나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러 경제과학공동기술위원회 러측 위원장도 맡고 있는 바사르긴 장관은 “북한 측이 경제협력위 활동 재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데 대해 러시아 측은 형식적 활동 재개보다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역할 증대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경제협력위 재개 날짜와 장소는 정부간 조율과 위원장 간 면담 등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러·북 경제협력위는 2007년 3월 모스크바에서 제4차 회의가 개최된 후 2009년 5월 평양에서 제5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러시아 측의 결정으로 무기한 연기됐음.
- 바사르긴 장관은 이어 “러시아는 남북한이 참여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북한 영토를 통과하는 러시아산 가스의 남한 공급을 위한 가스관 부설, (러시아와 한반도) 전력선 연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실현에 관심이 크다”며 그러나 “이 같은 프로젝트들의 실현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간 화해가 이뤄져야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러시아의 대북 전문가는 “리 장관이 모스크바 방문에서 양국 경제협력위 재개 방안과 경제협력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하겠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한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원세훈 국정원장 지난주 미국 방문(2/17)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주 미국을 극비리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음. 정부 소식통은 17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방미 기간 리언 파네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 원 원장은 CIA 측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및 급변사태 가능성,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 과정, 식량난 등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정



보를 교환한 것으로 보임. 파네타 CIA 국장은 지난해 10월 방한해 우리 정보 당국은 물론 외교안보 부처 책임자들과 대북정보를 교환할 예정이었지만, 방한 계획이 사전에 노출돼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원 원장의 이번 방미는 한미 정보당국 간의 통상적인 대북정보 교환 및 협의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원 원장이 꼭 막힌 남북관계를 뚫기 위해 미측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음. 지난 8~9일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해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가 안 보이자 정상회담이라는 큰 틀에서의 해법 모색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임.
-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현재 북한과 초보적인 대화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앞선 얘기”라며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을 부인했음.

● ‘키 리졸브’ 한미 군사연습 때 美항모 참여(2/14)

-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실시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합동군사연습 때 미 해군 소속 항공모함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지난해 참여하지 않는 미 항공모함이 연합 방위능력을 철저히 점검하는 차원에서 올해 키 리졸브 연습 때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밝혔음.
- 키 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정례 연습으로, 주한미군과 해외 미군, 군단급 이상의 한국군 병력이 참가함. 지난해에는 미군 1만8천여명이, 미 3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9만6천t급)가 참여한 2009년에는 미군 2만6천여명이 참가했음. 올해도 항모 대기 병력을 포함해 2만명 이상의 미군이 참여할 전망이다.
- 한미는 지난해 처음 공개한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연습을 올해 확대, 강화할 계획임. 핵 및 WMD 제거 연습에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제20지원사령부(20th Support Command) 요원들이 참가함. 2004년 10월 창설된 이 사령부는 세계 전장 일선에 파견돼 WMD 신속대응과 탐지,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함.
-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면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Foal Eagle)이 4월 중순까지 지속됨. 군 관계자는 “키 리졸브 연습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실시해오던 정례 연습으로 유사시 장비와 병력, 물자 전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북측에도 조만간 판문점 대표부를 통해 훈련일정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음.
- 북측은 매년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핵전쟁 연습’이라며 비난해왔음. 특히, 지난해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기간에 북한군은 잠수함(정)을 이용해 은밀히 백령도 근해에 침투, 정상적으로 경계 임



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난 바 있음.

- 군 당국은 이번 연습기간에 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한·일 관계

● <日정국 혼미> 韓 도서반환 불투명성 증대(2/20)

- 일본의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으로 빠져들면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현안에도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열리고 있는 일본의 정기국회에서 ‘한일 도서협정’ 처리 여부임.
- 집권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법안을 1순위로 처리한 뒤 야권의 협조를 얻어 한일 도서협정을 2순위로 통과시킨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의 반대와 내분으로 예산안과 관련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일 도서협정의 비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예산안처리 무산으로 국정이 마비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퇴진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경우 일본의 여야가 한일도서협정을 비준할 ‘여유’가 있을지 의문임.
- 보수·우익 의원들이 득세하고 있는 자민당의 움직임도 변수임. 당론으로는 한일도서협정에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도서협정에 순순히 도장을 찍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자민당 외교부회는 외무성에 식민통치 기간 한국으로 건너간 옛 도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외무성은 이를 수용했음.
- 자민당은 외무성이 한국에 있는 옛 일본 도서에 관한 조사내용을 보고해야 한일 도서협정 국회 심의에 응하겠다는 방침임. 자민당의 하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중의원 의원은 “한국에도 일본의 귀중한 문서가 남아있다. 한국은 (이번 도서협정으로) 얻는 것이 많지만 일본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 의원도 “문화교류라면 한국에 있는 일본의 고문서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민당이 한국 도서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국에 있는 일본 도서의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이와 관련 한일 외교소식통은 “자민당이나 공명당이 공식적으로 한일도서협정에 반대하지 않아 비준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간 정치적 줄다리기의 대상이 된다면 조기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음.
- 이미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은 한일도서협정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자민당 등 야권이 신중한 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무



산된 바 있음.

- 간 정부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사태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쿠릴열도(일본 명칭은 '북방영토')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추락했기 때문에 영토 문제나 역사문제에서 경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일 “방위협력 제반여건 고려해 추진”(2/16)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16일 한·일 방위·안보협력과 관련해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합의했음.
-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이쿠라(飯倉) 공관에서 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이 같은 합의는 지난달 10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간에 이뤄진 양국간 군사협정체결 추진 합의사항을 양국 외교장관 차원에서 정식 합의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양국간 방위·안보협력 문제가 막판에 양국 외교장관 합의사항에 포함된 것은 일본측의 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이와 관련해 마에하라 외상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측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방위·안보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국방장관 차원에서 합의된 사항을 다시 확인한 의미”라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양국간 협력 수준은 군사작전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정보협력과 비밀보호협정 체결, 군수협력, 해난구조, 군사 인적교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일 “남북간 진정한 대화가 우선”(2/16)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16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남북간의 진정한 대화를 우선으로 다양한 양자접촉을 통해 올바른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음.
-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이쿠라(飯倉) 공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이는 양국이 지난달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의 방한 때 합의한 ‘선(先) 남북대화, 후(後) 북·일대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임.
- 양국 장관은 이어 북한이 천안함 및 연평도 문제에 대해 진정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김 장관은 “북한이 회담에 나와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일은 이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중국도 우리 입장을 잘 알고



- 있다”고 말했다.
- 김 장관은 이어 “우선 지난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이 유연성을 갖고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본회담 개최의 제와 수석대표의 급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북한이 거기에 대해 우리측의 제의를 수용하면 회담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에하라 외상은 “작년 12월 한·미·일 외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며 “만일 6자회담을 개최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에하라 외상은 “동시에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어떤 진전이 있는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대화가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양국 외교장관은 또 북한 우리농 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장관은 “한·일 양국은 북한 UEP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마에하라 외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위반”이라며 “우리농 농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안보리를 포함한 적절한 장소에서 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 양국 장관은 또 올해 안으로 양국간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일본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속한 방일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한국측은 간 총리의 방한이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 이날 면담에서 김 장관은 간 총리 담화의 후속조치인 ▲조선왕실의 궤 등 한반도에서 반출된 도서 반환 ▲사할린 한인 지원 ▲민간인 유골봉환 문제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대응을 요청했으며 마에하라 외상은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또 재일동포 사회의 염원인 지방참정권 문제에 진전이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 한·일 FTA와 관련해 마에하라 외상은 협상의 조기재개를 요청했고 김 장관은 협상재개의 우호적 환경조성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국장급 협의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측은 이를 위해 오는 4월 2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 양국 외교장관은 ▲부품·소재 산업협력 ▲양국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재신 차관보, 장원삼 동북아 국장, 권원직 북핵협상과장이, 일본측에서 반노 부대신, 키쿠타 정무관,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오노 북동아과장이 배석했다.



● 간 총리 “올해 새로운 한·일관계 시작해야”(2/16)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6일 한·일관계와 관련해 “작년은 병합 100년을 맞아 전환점이 되는 한해였으나 올해는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간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공관에서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작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때 도서반환 협정을 체결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유익한 대화를 나눈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간 총리는 또 북한 문제에 언급, “제 문제도 있고 북한 문제도 있지만 북한 문제의 경우 한·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협력해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 간 총리는 이어 “이 대통령이 올해 일본을 꼭 국빈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민주당 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 김외교, 센고쿠 면담..도서반환 협조요청(2/16)

-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16일 일본 정당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반출된 도서 반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민주당 대표대행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 아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각각 면담을 갖고 도서반환 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김 장관은 이들 대표에게 일본 국회의 심의가 원만히 진행돼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치권이 협조해달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면담에서 대표적 지한파 인사로 분류되는 센고쿠 민주당 대표대행은 김 장관에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 힘이 드시겠다”고 말했다고, 이에 김 장관은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이고 특히 민주당 정부 들어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편 김 장관은 17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시절 외무대신을 지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 日 마에하라 “한일 FTA 협상 재개 추진”(2/15)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16일 방일하는 김성환 외교장관을 만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마에하라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조기 재개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중단됐던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촉구한 바 있음.
- 마에하라 외상은 김 장관과 지난해 8월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이후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지난주 열렸던 남북 군사 실무



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 미·중 관계

● 中, 美에 “인터넷 핑계로 내정간섭말라”(2/17)

- 중국이 자국을 인터넷 탄압국가로 지명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인터넷 발전을 지지하고 합법적으로 국민의 발언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터넷 자유 문제를 핑계삼아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마 대변인의 이 발언은 클린턴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에서 인터넷 자유와 압제의 한계를 역설하면서 이란, 미얀마, 베트남, 시리아와 더불어 중국을 인터넷 탄압국가로 거명한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임.
- 클린턴 장관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민주화 시위가 막 시작된 이란에서 “당국이 야당과 미디어의 웹사이트를 봉쇄하고, 소셜미디어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물론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훔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등을 함께 거명했음.
- 그는 이어 서방매체들이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높이 100피트(약 30m)의 현대식 발사타워 옆에 커다란 미사일 발사대가 설치돼 있는 것이 포착됐다는 서방매체의 보도에 대해 “그 방면에 소식을 들은 게 없다”며 답을 피했음.

라. 중·일 관계

● “中 리커창 부총리 연내 방일 검토”(2/20)

- 중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強) 부총리가 연내 일본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중일 관계는 매우 민감한 2국 관계만큼 리커창 부총리가 총리 취임 전에 일본을 방문해 각계와 교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신문에 따르면 리 부총리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정치적 기반인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 출신으로 후 주석의 분신으로 불리고 있으며 2012년 제18회 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에 오를 시진핑 부주석과 함께 혁명 5세대의 중심인물임. 리 부총리는 2013년 봄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총리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신문은 “한국도 리커창 부총리를 초청했고 중국 측으로부터 ‘연내 반드시 방한한다’는 회답을 받았다”면서 리 부총리가 한국과 일본을 같은 시기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中 ‘남쿠릴 투자갈등’에 불간섭 전략>(2/17)

- 중국의 수산업체가 남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 양식사업 투자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와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 중국 정부가 ‘무대응’ ‘불간섭입’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임.
- 상당수의 중국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 수산물 회사의 남 쿠릴열도 양식사업 투자를 ‘단순한 사업적 거래’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러·일간의 갈등에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중국 사회과학원의 러시아 관계 전문가인 청위권(程亦軍)은 “러시아는 분쟁지역인 남 쿠릴열도에 대한 영향력과 주권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그것(자국 수산업체의 투자)에 반대하면 러시아가 불만을 갖게 되고, 만일 그것을 지지하면 일본을 화나게 하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고 말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음.
- 청위권은 또 중국과 러시아 기업간 합작투자 합의가 일본과 미국간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상황을 더욱 미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음.
- 중국 정부는 이번 중국 수산업체의 남 쿠릴열도 사업 진출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일본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해 “우리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음.
- 그러나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이 자국 기업의 남 쿠릴열도 투자를 내심 지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을 관측을 전해 관심을 모았음. 중·러 경제관계 전문가인 텐춘성은 환구시보에 중국 정부는 자국 수산업체의 남 쿠릴열도 투자를 묵인하게 될 것이고 전망했음.
- 그는 “이것은 중국 수산업체와 러시아가 ‘윈-윈’ 할 수 있는 거래”라면서 “중국 정부가 이 거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음.

● “日 정권 핵심관계자, 4.5월 줄줄이 방중”(2/16)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4월,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민주당 대표대행은 5월에 각각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음. 마에하라 외상의 방중은 지난해 9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갈등이 심해진 뒤 각료급으로는 첫 방문임. 마에하라 외상을 올 들어 미국, 한국,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5월 3국 정상회담 사이에 중국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 일본측은 방중 기간에 마에하라 외상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 등의 회담을 통해 내년 중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책을 논의하는 한편, 센카쿠 갈등 이후 중국이 무기한 연기한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조약 교섭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이어서 센고쿠 당 대표대행은 신해혁명 100주년(10월10일)을 앞두고 5월에 중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맞춰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민주당 정권이 마에하라 외상에 이어 센고쿠 당 대표대행을 잇달아 중국에 보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방중 길을 닦으려는 의도지만, 일본 국회 사정 탓에 유동적인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 일·러 관계

● “韓中기업, 쿠릴열도서 러와 공동사업”(2/16)

- 중국과 한국의 수산업체가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서 러시아와 공동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음.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수산물 업체가 러·일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열도의 한 섬에서 해삼 양식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음.
- 중국 다롄(大連)의 한 수산물 회사와 러시아 기업인 ‘보즈로쥬데니예’는 이달 초 남쿠릴열도 중 쿠나시르(Kunashir, 일본명 구나시리<國候>)에서 해삼 양식 사업을 하기 위해 합자회사를 만든다는 기본 합의 각서에 서명했음. 교도통신은 남쿠릴열도 섬에서 러시아와 일본 외의 제3국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라고 보도했음.
- 보즈로쥬데니예의 사장은 “중국 기업에는 자금력과 기술이 있고, 중국에는 광대한 해삼 판매 시장이 있다”고 말했음. 러·중 합자회사는 환경 조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임.
- 중국 기업의 남쿠릴열도 사업 진출에 대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5일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태도와 상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음.
- 아사히신문은 극동의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의 수산업체가 한국 기업과 쿠나시르에서 공동사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까운 시일내 한국으로부터 2명의 담당자가 쿠나시르를 방문해 합의문서에 서명할 것이다”고 전했다.
- 일본은 제3국 기업의 남쿠릴열도 투자가 러시아의 영유권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러시아는 작년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등 남쿠릴열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 외에 중국이나 한국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음.